

전남도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 잔걸음

전문가 토론회서 중점 추진 사업 포함 기본계획 발표 '자산지소'·'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 전략 등 논의

전남도는 2일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산지소',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등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전략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가 제시한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구축을 넘어 풍력·태양광 발전 기반, 도민 기본소득 실현, 국가 성장·지방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등 혁신을 이끄는 포괄적 개념이다.

토론회엔 이세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이등호 목포대학교 교수, 오병기 전남연구원 실장,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융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40% 재생에너지 발전 ▲전남 2조4천억원 에너지기본소득 ▲미래 첨단산업 일자리 ▲전남 특화산업 연계 일자리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 성공을 위한 5대 분야 중점 추진 사업이 포함된 전남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3개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호남권 자산지소 성장도약 고속도로'로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글로벌 첨단 기업과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유치해 전남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전략이다.

'도민 기본소득 고속도로 1·2호선'은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발전 수익을 주민

과 공유해 2040년까지 연간 2조4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지역민의 경제적 활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국가 첨단산업 활성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대기업에 재생에너지(RES) 전력을 공급, 국가첨단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전력수급균형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2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점 추진 사업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과 공유해 2040년까지 연간 2조4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지역민의 경제적 활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국가 첨단산업 활성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대기업에 재생에너지(RES) 전력을 공급, 국가첨단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전력수급균형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서남해안 에너지 신도시 조성, 대규모 국가 재생에너지 스테이션 구축, 환태평양 해상풍력 관광벨트 조성 등 전남의 특성을 살린 신규 사업을 소개했다.

전남도는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35kV 초광역선로 2회선 구축, 지역 내 35kV 및 15kV 회선보강, AI 스마트그리드, 섹터커플링, 지능형 DR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전남도는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와 AI 기술을 결합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혁신 프로젝트"라며 "이를 통해 지역민과 국가 경제 모두 혜택을 누릴 에너지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문가 회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대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양시원 기자

"미래 디자인 먹거리 발굴 힘쓸 것"

제8대 광주디자인진흥원장 김용모 광주대 교수 임명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8대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으로 김용모(64) 광주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용모 원장은 3일부터 2년 임기의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김용모는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시각·포장디자인 석사학위, 전남대학교 조경·환경디자인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디디자인 대표를 지냈고 2011년부터 광주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디자인 연구 활동과 함께 창업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회장·호남지

회장, 한국디자인지식포럼 광주전략지 회장 등을 맡았고 현재 한국스토틀리자 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 및 연구역량을 쌓는 등 디자인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산업·환경 분야 디자인 전문가로서 디자인진흥원의 경영은 물론, 디자인산업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해 미래 디자인 먹거리 발굴 등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베스트10 정책' 시민이 직접 뽑는다

5일 시청서 스타정책 경진대회...후보 정책 15개

광주시민이 올해 광주를 빛낸 우수 정책을 직접 선정한다.

광주시는 오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여는 '스타정책 경진대회'는 기존 우수 정책 평가의 단점을 보완해 1회성 평가가 아닌, 지난 4월부터 11월 까지 8개월 동안 연중 지속해서 진행한다.

평가 방법도 혁신적으로 전환해 전문가·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행사는 시민 중심의 연중 지속 평가인 '정책평가위원회'의 하나로 올해의 베스트10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보 정책들은 '광주 복합쇼핑몰 이제는 됩니다', '연중무휴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국가 AI데이터센터 서비스 기업에 찾아오는 AI 대표도시' 등 15개다.

경진대회는 시민평가단 300명과 전문가평가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후보 정책 발표 직후 전자투표를 활용해 현장 평가를 하게 된다.

사전평가 30%, 시민평가단 40%, 전문가평가단 30% 비율로 선정에 '올해의 베스트10정책'을 최종 선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민선 8기 224개 주요 사업과 176개 공약사업 중 내부 검토를 통해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복지·돌봄·포용 ▲안전·교통 ▲환경·청년·교육 등 5대 분야 52개 후보 정책을 선정했다.

4월에는 52개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광장인 '광주온',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가장 기대되는 정책 30개를 추렸다.

5월25일 열린 '시민의날' 행사에서는 30

개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30개 사업별 추진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정책부스를 설치해 담당자가 직접 시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각 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를 진행, 시민 2천7백명이 정책 평가에 참여했다.

9-11월에는 지역사회리더 평가를 진행해 5개 자치구 통장·주민자치위원과 경제인 등 4천701명이 동참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정책별 득표를 합산 집계해 30개 후보 사업 중 15개 사업을 '올해의 베스트10' 후보 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경진대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 특화 스타트업 육성 맞춘...道·신보, 공동 지원 협약

전남도와 신용보증기금은 2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Glocal) 스타트업 공동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가 글로벌 으뜸기업을 포함한 지역 특화 스타트업(연 30개 사 안팎)을 신보에 추천하면 신보는 평가 후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비율 0.5% 등 우대 사항이 적용되는 글로벌 특화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양시원 기자

'행복등지사업' 취약층 주거안정 효과

전남도, 2016년부터 230억 투입 1천380가구 개·보수

전남도가 전국 최초 추진 중인 주거복지 시책 행복등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 실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등지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한

전남도의 대표 주거 복지사업이다. 2018년까지 지방비로 추진했으나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돼 2019년부터 매년 복권기금을 확보,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등 민·관이 협업한 대표적 협업 우수 사례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기관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전남도와 시·군에서 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성공적인 민·관 합동 주거복지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실제 2016년부터 총 220억원을 투입, 1천380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올해는 복권기금 27억원을 포함해 총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77가구의 노후 주택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의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화정동 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 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 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 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 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급매 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임대,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